

#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요구 영향요인

임광명<sup>a</sup> · 박덕병<sup>b\*</sup> · 이신영<sup>c</sup>

<sup>a</sup>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sup>b</sup>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개발학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sup>c</sup> 평택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for Character Education

Kwang-Myeong Lim<sup>a</sup> · Duk-Byeong Park<sup>b</sup> · Shin-Young Lee<sup>c</sup>

<sup>a</sup>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Pyeongtaek University, Korea

<sup>b</sup>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c</sup> General Education Center, Pyeongtaek University, Korea

### Abstract

Since the discussion on solving some problems in modern society began in the late 1990s, the interest in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has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for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obtained from 318 students in a university. Three factors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were individual, interpersonal, social character factor. Results showed that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character educations are academic achievement and volunteer activities for individuals character,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ctivities in campus for interpersonal and social character educational factor. The findings should be of interest to practitioner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Key words:**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needs, needs assessment

## 1. 서 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 등의 특징을 보이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장사형, 2011). 이러한 현대사회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질되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폭력성을 띄며 대학생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성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초/중/고 도덕교과와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초등학교에 집중되었다. 이는 중,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워 주로 초등학교 단계의 인성교육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은 인성교육의 공백기를 지내고 입학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대학별로 다각적인 방안이 개발, 적용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 대학생들은 입주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거듭된 실패와 좌절로 자존감이 저하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대학생활의 소극적 태도, 학과에 대한 소속감 저하, 전공분야에 대한 낮은 학업성취 등을 초래하였

주요어: 인성교육, 교육요구, 요구분석

\* 교신저자(박덕병) 전화: 041-330-1383 e-mail: parkdb84@kongju.ac.kr

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중도탈락과 취업 시 적응하지 못하는 약순환을 초래하고 있다(이영애, 2006; 이주희, 최명선, 박희현, 2009).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학들은 더욱더 인성교육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기업들도 사회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취업 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지희진, 2013). 현재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이념, 장기발전계획 수립, 핵심역량, 인재상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전제아, 2005).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으나(노이경, 정남운, 2007; 이영애, 2006; 이주희, 최명선, 박희현, 2009; 홍경자, 2004; 홍기철, 1999) 대부분 기존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들로 일반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교과 내용에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학의 인성교육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김명순, 김성희, 2012).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인성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공급자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성교육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도 주로 교육공급자 입장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이은정, 최정훈, 1991; 이현석, 최은희, 황미영, 2009; Nerdrum, 1997) 교육수혜자인 대학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전이, 장형심, 조은정, 2015).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연구(성명희, 김은주, 2015)가 수행된 바 있으나, 대학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대학생의 인성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도(education needs)를 확인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요소를 성명희, 김은주(2015)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요소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인성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고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대학의 인성교육

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공감하고 주도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실제적 요구가 반영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인격, 기질, 도덕성, 인간성, 성격 등으로 정의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인성교육’역시 시대마다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인간다운 바람직한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조난심, 이종태, 1997; 최준환, 박춘성, 연경남 외, 2009; 서경혜, 최진영, 노선숙 외, 2013).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중반이후의 심리학적 접근과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도덕성 회복 및 함양을 위한 전통적 덕목을 중시한 접근이 전개되었다.

심리학적 접근에서의 인성은 인지발달의 한 축으로 보며, Piaget와 Kohlberg 등이 연구한 도덕성 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노년기까지 몇 개의 시기(period), 단계(stage)로 구분해 인성이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아동에게 강제적, 주입식으로 인성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아동의 자율에 맡기고 이성적 추론능력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안범희, 2005; Salls, 2007). 이러한 관심은 1960년대 미국사회에서 개인 중심주의가 만연하여 특정가치를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 덕목을 중시한 접근에서는 인성을 도덕성과 같은 의미로 보고(Hersh, Miller & Fielding, 1980), 인성교육을 도덕성 함양 및 회복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인지적 발달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접근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증가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인성교육에 비판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통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전통적 덕목을 살리는 인격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안범희, 2005; Carr,

1997)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이 새로운 인성교육의 접근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회가 더욱 발전하면서 인성교육의 개념이 두 가지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다.

첫째는 인성교육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이다. 통합적 인성교육론자인 Lickona(1992)는 인성이 인지적 측면(moral knowing), 정의적 측면(moral feeling), 행동적 측면(moral ac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차원을 모두 통합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하였다. 각각의 차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통합적인 인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인지적 측면의 하위요인으로는 도덕적 인식(moral awareness), 자기인식(moral self-knowledge), 도덕적 가치인식(knowing moral value),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입장 채택(perspective taking),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 있다. 정의적 측면의 하위요인으로는 자아통제(self-control), 양심(conscience), 자존감(self-esteem), 감정이입(empathy), 선을 사랑하는 것(loving the good), 겸양(humi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측면은 습관(habit), 의지(will), 역량(competence)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Lickona(1992)의 접근은 심리학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수직적, 발달적 접근에 수평적 발달 개념을 도입한 통합적 접근으로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의 성숙된 삶을 설명하였다(Ryan & Lickona, 1992).

두 번째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강조하게 되어(김명화, 2015; 정창우 외, 2013; 이근호 외, 2012) 기존 인성 개념에 추가되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기존의 도덕, 윤리적 요소에 공감능력, 갈등해결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타인 존중 등 사회정서 발달에 관련된 요소들이 추가되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의 개념을 기술적 측면이나 지식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정의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인간 내면의 심층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윤정일 외, 2007; 이효성, 이용환, 2011). 김재춘(2012)도 실천적 요소를 강조하며 개성과 교양기반, 다원적 가치존중, 배려와 나눔 실천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성교육은 지식, 기능 뿐 아니라 가치, 태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인성교육의 목표는 지식과 행동이 연결될 수 있는 '수행관련 능력'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2.2.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Pearson & Nicholason(2000)은 크게 3가지 특성으로 제안하였다. 자아와 관련된 특성으로 책임, 자제, 자아존중, 용기를 제시하였고, 타자와 관련된 특성으로 정직, 감정이입, 친절, 존중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시민의 덕, 공정성, 정의를 제안하였다(지은림 외, 2014). 조연순 외(1998)는 인성을 타고난 특성이 아닌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한 성품으로 정의내리면서 자아존중의식, 타인존중의식, 민주 시민의식으로 나누어 인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자기존중의식으로 자아수용과 자아통제, 자신감을, 타인존중의식은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정신, 정직을 제시하였으며, 민주시민의식으로는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을 제시하였다. 성명희, 김은주(2015) 연구에서는 자기와 타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성을 강조하며 인성구성요소를 영역으로 나누지않고 지혜, 용기,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준법, 정의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을 인간다운 바람직한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변화 가능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개인적 차원, 타인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하위 요소로 분류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지은림 외, 2014 재구성).

## 2.3.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국가적 차원의 교육정책 속에 반영되면서 학교교육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영역까지도 인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었다(김선주, 2016; 문용린 외, 2004; 이강하, 2009). 이러한 교육적 관심은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 시행되게 하였고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법제처, 2016).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대학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상실감, 좌절,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대학생의 적응의 어려움과 대학의 중도 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이영재, 2006; 이주의, 최명선, 박희현, 2009). 이러한 어려움은 취업 시 적응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인으로서 적응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표 1〉 인성교육에 대한 분류

구분	개인적 차원	타인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
손봉호(1999)	개인의 자아발견 심미적 소양 긍정적 생활태도 도덕적 책임의식 도덕적 판단력	정의와 선악의 분명한 구별 다른사람에 대한 이해와 동정	넓은 국제시야와 미래
Lickona(1993)	도덕적 자각, 도덕적 가치인식,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자아에 대한 지식 양심 선을 사랑하는 마음 자아통제 및 겸손	관점의 조망 감정이입 의사소통, 경청 협동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조연순 외(1998)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권위의 존중과 수용 예의범절 효/사랑/배려/정직/신뢰/준법정신 /봉사정신/협동정신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Pearson & Nicholson(2000)	책임 자제 용기 자아존중	정직 존중 친절 감정이입	공정성 정의 시민의 덕
박효정(2000)	정직 생명존중 절제/자기통제/인내	타인배려 경로효친 성윤리	공공질서 의식 평등의식 사회연대의식 애국애족 환경보호의식
조난심 외(2004)	성실 정직 자주 절제 자기주도성 사과의 유연성	예절 협동/준법/책임 타인배려 효도/경애 관용(개방성)	정의 공동체 의식 민족애 인류애 타문화 이해 생명존중
강선보 외(2008)	도덕성 전일성 영성 창의성	관계성	민주시민성 생명성
박성미, 허승희(2012)	긍정적인 생활태도 심미적 소양 도덕적 판단력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세계시민의식
성명희, 김은주(2015)	지혜, 용기,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준법, 정의		

수도 있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인성교육이 대학에서도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이 직업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학원, 전문지식 훈련기관으로 변하여 학생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이며 몰지성적인 행동 경향을 보이고 있어(이형득, 1996)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나 기업에서도 인성을 겸비한 인재상을 원하고 있어 진취적 인재, 책임감 있는 인재,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요구도와 관련된 진의남(2012)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졌고 요구도는 반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문제점으로 과도한 입시부담이 공동체 의식, 협동심, 바른생활 습관 형성 기회의 부족을 초래하였

고 이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입시부담이 많아지는 고학년일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족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대학에서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들이 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이영애, 2006). 실제로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인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전제아, 2005)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성이나 인성교육의 개념의 추상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가치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신차균, 2001). 즉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대상인 대학생들이 무엇을 인성이라 생각하고 있

으며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며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이다.

### 3. 연구방법

#### 3.1. 측정항목 도출

인성교육의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명희, 김은주(2015)의 인성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국내의 관련 문헌을 재검토하고 P대학의 특성(대학의 핵심역량인 개척정신 삼입)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수정, 조정하였다. 인성의 구성요소는 지혜, 용기,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협동, 개척정신, 소통, 헌신 등 총 13개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중요도와 수준을 묻는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활동과 대학 서비스에 대한 3개 문항, 일반적 특성은 성별, 전공계열, 성적 등에 대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2. 자료수집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대학교 1학년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6년 6월 3일 인성관련 교양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의 조사수집이 원활하도록 학과의 분포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을 추출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총 318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3.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총 4단계의 분석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13개의 인성교육 측정문항을 인성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Borich 요구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

여 인성교육 중요도와 수준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성교육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으로 요구도 분석 점수를 산출하여 각 요인별 교육요구 수준을 분석하였다. 넷째, 도출된 각 요인별 교육요구도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교활동, 그리고 학교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for window version 23.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Borich 요구도분석, 회귀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 점수 산출에 활용된 Borich 요구도 공식은 현재수준과 요구수준(중요도 인식) 차이의 합계를 구하여 요구수준의 평균을 곱한 후 이를 전체 사례수로 나누는 값이다. 요구수준(중요도 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수준이 낮을수록 요구도 점수의 값은 높아진다(성명희, 김은주, 2015; Borich, 1980).

<표 2> Borich(1980)의 요구도 공식

$$\text{교육요구도} = \frac{\sum(RCL - PCL) \times \text{Avg.}(RCL)}{N}$$

RCL(Required Competence Level) : 요구되는 능력 수준  
 PCL(Present Competence Level) : 현재의 능력 수준  
 Avg.(RCL) : RCL의 평균  
 N : 사례수

자료 : 성명희·김은주(2015), Borich (1980)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의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대학 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성 164명(51.6%), 여성 154명(48.4%)으로 남성이 많았고, 전공계열별로는 예술계열 119명(37.4%), 공학계열 110명(34.6%), 인문계열 89명(2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수준은 중위권 196명(61.6%), 상위권 70명(22.0%), 하위권 52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응답자 특성	성별 (n=318)	남성	164(51.6)
		여성	154(48.4)
	전공계열 (n=318)	인문계열	89(28.0)
		공학계열	110(34.6)
		예술계열	119(37.4)
	성적수준 (n=318)	상	70(22.0)
		중	196(61.6)
		하	52(16.4)
	계		318(100.0)

### 4.2. 인성교육 하위요인별 중요도 인식과 인성발달 수준

인성교육 하위요인별 중요도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았다. 인성교육 하위요인별 중요도 인식과 인성발달 수준의 하위 항목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1점 이상~3점 미만인 경우 수준이 낮음, 평균점수가 3점 이상~4점 미만일 경우 수준이 보통,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는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수준의 전체평균은 4.00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이었다. 인성교육의 하위요인 중 예절은 평균 4.16, 존중은 평균 4.14, 배려는 평균 4.09, 책임은 평균 4.08, 효도는 평균 4.06, 성실은 평균 4.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통능력은 평균 3.99, 절제는 평균 3.98, 지혜는 평균 3.93, 용기는 3.90, 헌신(봉사)은 평균 3.84, 개척정신은 평균 3.78로 나타났으며 보통수준이었다.

인성발달 수준의 전체평균은 3.7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이었다. 인성의 하위요인 중 예절은 평균 3.92, 존중은 평균 3.91, 배려는 평균 3.91, 책임은 평균 3.80, 소통능력은 평균 3.73, 성실은 평균 3.72, 효도는 평균 3.72, 협동은 평균 3.66, 지혜는 평균 3.65, 절제는 평균 3.61, 용기는 평균 3.56, 개척정신은 평균 3.54, 헌신(봉사)은 평균 3.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성에 대한 하위요인 모두 보통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성교육의 하위요인별 중요도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향을 보이며, 예절, 존중, 배려, 책임, 효도, 성실에 대한 인성교육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는 반면, 개척정신, 헌신(봉사) 등의 인성교육 중요성은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성발달 수준은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의 평균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인성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인성의 수준은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인성교육 하위요인별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

구분	중요도 인식		인성발달 수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혜	3.93	.811	3.65	.844
용기	3.90	.842	3.56	.896
성실	4.05	.852	3.72	.892
절제	3.98	.838	3.61	.929
효도	4.06	.904	3.72	.862
예절	4.16	.866	3.94	.813
존중	4.14	.873	3.91	.822
배려	4.09	.849	3.91	.835
책임	4.08	.886	3.80	.844
협동	3.98	.888	3.66	.904
개척정신	3.78	.886	3.54	.931
소통능력	3.99	.854	3.73	.889
헌신(봉사)	3.84	.943	3.53	1.004
계	4.00	.708	3.71	.674

1=매우 낮음, 3=보통, 5=매우 높음

### 4.3. 인성교육 발달 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P대학의 1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인성교육 발달 수준에 대한 요인분석은 주성분 방법을 이용하여 공통요인들에 대한 점수를 추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 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에 대한 결정은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누적 분산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 3개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71.0%이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인 표준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 값은 0.95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2641.42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표 5>와 같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은 인성의 구성요소 중 '배려', '존중', '예절', '책임'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타인관계적 인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성실', '절제', '지혜', '효도', '용기'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인적 인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개척정신', '협동', '소통', '헌신'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인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명명은 이론적 배경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3가지 분류로 제안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타인에 대한 인성, 개인에 대한 인성, 사회에 대한 인성 등 3개의 요인이 요인범주 내에

서 평가 항목들의 결합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알파(Cronbach's  $\alpha$ )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법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요인 모두 신뢰도 계수가 0.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인성교육 발달 수준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 $\alpha$	평균 <sup>a</sup>
요인 1: 타인관계적 인성 배려 존중 예절 책임	.804 .778 .689 .619	58,394	24,329	.902	3.89 3.90 3.91 3.94 3.80
요인 2: 개인적 인성 성실 절제 지혜 효도 용기	.723 .704 .666 .630 .607	6,933	23,711	.929	3.66 3.72 3.61 3.65 3.72 3.56
요인 3: 사회적 인성 개척정신 소통 헌신	.766 .697 .684 .612	5,670	22,955	.881	3.62 3.54 3.66 3.73 3.53

설명분산의 누적값 = 70.70%, KMO = 0.949  
<sup>a</sup> 1=매우 낮음, 3=보통, 5=매우 높음

#### 4.4. 인성교육 요구도 분석

인성교육의 중요도인식과 발달수준을 바탕으로 보리치(Borich) 요구도 점수를 산출하여 그에 따른 하위요인별 순위와 요인별 순위를 도출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았다.

인성의 하위요인에 따른 보리치(Borich) 요구도 값은 절제(1.456), 효도(1.353), 성실(1.350), 용기(1.312), 협동(1.277), 헌신(봉사)(1.220), 책임(1.145), 지혜(1.088), 소통능력(1.029), 존중(0.979), 예절(0.905), 개척정신(0.892), 배려(0.7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에 있어 절제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으며, 배려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별 보리치(Borich) 요구도 값을 살펴보면 개인적 인성(6.501), 사회적 인성(4.417), 타인관계적 인성(3.803) 순으로 나타나 개인적 인성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으며 타인관계적 인성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5. 인성교육 요구도 영향요인 분석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7>과 같았다. VIF 값은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

〈표 6〉 인성교육 요구도

구분	Borich 요구도	순위	요인별 Borich 요구도
개인적 인성	지혜	1,088	8
	용기	1,312	4
	성실	1,350	3
	절제	1,456	1
	효도	1,353	2
타인 관계적 인성	예절	0,905	11
	존중	0,979	10
	배려	0,759	13
	책임	1,145	7
사회적 인성	협동	1,277	5
	개척정신	0,892	12
	소통능력	1,029	9
	헌신(봉사)	1,220	6
계			14,762

를 위해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계산하였으며 4개의 회귀식 모두 D-W 값이 1.746-1.885로 나타나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성 교육요구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576, p<0.01$ ),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9.4%로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개인적인성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 $\beta=0.22, p<0.01$ ), 봉사활동( $\beta=0.15, p<0.01$ )이었다.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성적이 낮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인성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타인적인성 교육요구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976, p<0.01$ ),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8.1%로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타인적인성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 $\beta=0.13, p<0.01$ ), 캠퍼스활동 참여( $\beta=0.19, p<0.01$ )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성적이 낮고, 캠퍼스활동 참여가 낮은 학생일수록 타인적인성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인성 교육요구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3.59, p<0.01$ ),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6.9%로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사회적인성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 $\beta=0.19, p<0.01$ ), 캠퍼스활동( $\beta=0.14, p<0.01$ )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성적이 낮고, 캠퍼스활동 참여가 적은 학생일수록 사회적인성 교육요구도가 높

〈표 7〉 인식교육 요구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N=314)

독립변인		종속변인		개인적인성 교육요구도		타인적인성 교육요구도		사회적인성 교육요구도		전체 인성 교육요구도	
		$\beta$	VIF	$\beta$	VIF	$\beta$	VIF	$\beta$	VIF		
성별 (남자=1, 여자=2)		-0.01	1.20	0.09	1.10	0.04	1.09	0.72	1.10		
성적 (하=1, 중=2, 상=3)		-0.22**	1.05	-0.13**	1.06	-0.19**	1.06	-0.20**	1.06		
전공	인문사회계열 (더미 0 or 1)	-0.05	1.25	-0.042	1.38	0.06	1.37	-0.06	1.38		
	공학계열 (더미 0 or 1)	0.03	1.11	-0.02	1.43	0.04	1.42	0.01	1.43		
	이공계열 (참조변인)	-	-	-	-	-	-	-	-		
학교 활동	캠퍼스활동참여 (전혀안함=1, 매우많이 함=5)	0.07	1.02	-0.19**	1.46	-0.14**	1.45	-0.14**	1.46		
	봉사활동참여 (전혀안함=1, 매우많이 함=5)	-0.15**	1.05	-0.12	1.46	-0.10	1.46	-0.14**	1.46		
대학서비스만족 (매우 불만족=1, 매우만족=5)		0.02	1.09	0.09	1.21	0.10	1.21	1.18	1.21		
R <sup>2</sup>		0.094		0.102		0.090		0.106			
Adjusted R <sup>2</sup>		0.073		0.081		0.069		0.085			
F-Value		4,576**		4,976**		4,359**		5,179**			
D-W		1.885		1.746		1.806		1.753			

\*p<0.05, \*\*p<0.01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성 교육요구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5.179, p<0.01$ ),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8.5%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전체 인성 교육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적( $\beta=-0.20, p<0.01$ ), 캠퍼스활동 참여( $\beta=-0.14, p<0.01$ ), 봉사활동 참여( $\beta=-0.14, p<0.01$ )였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성적이 낮고, 캠퍼스활동 참여가 낮고, 봉사활동 참여가 적을수록 전체 인성 교육요구도는 낮게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P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도출하는 것이다. 인식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식교육의 중요도 인식과 인성발달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교육의 중요도는 ‘예절’, ‘존중’이 높게 나왔으며 ‘개척정신’, ‘헌신(봉사)’은 낮게 나타났다. 인성발달 수준은 중요도 인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예절’, ‘존중’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요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결

과를 보였다.

인성발달 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개인적 인성’, ‘타인관계적 인성’, ‘사회적 인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강선보 외, 2008; 박효정, 2000; 엄상현 외, 2014; 조난심 외, 2004; 조연순 외, 1998; Pearson, Nicholson, 2000)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Borich의 교육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인식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절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도’, ‘성실’, ‘용기’, ‘협동’, ‘헌신(봉사)’, ‘책임’, ‘지혜’, ‘소통능력’, ‘존중’, ‘예절’, ‘개척정신’, ‘배려’순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요구도는 ‘개인적 인성’, ‘사회적 인성’, ‘타인관계적 인성’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개인적인성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적과 봉사활동이었고, 타인관계적인성과 사회적 인성은 성적과 캠퍼스활동의 참여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즉, 성적이 낮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일수록 개인적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성적이 낮고 캠퍼스활동의 참여도가 낮은 학생 일수록 타인관계적, 사회적 인성교육의 요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식교육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예절’과 ‘존중’이었다. 초,중,고 학생, 교사와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한 진의남(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이 정직과 예절, 학부모는 정직과 배려, 교사는 배려와 정직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학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명희, 김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존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과는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에도 입장에 따라 상호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적 접근과 더불어 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적 접근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순위를 분석한 결과 절제, 효도, 성실, 용기, 협동, 헌신(봉사), 책임, 지혜, 소통 능력, 존중, 예절, 개척정신, 배려 순으로 나타났다. 절제, 효도, 성실 등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예절, 개척정신, 배려 등이 낮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Macntyre(2007)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듯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예절이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따라 인성에 대한 요구도는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지속적으로 연구,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성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적 인성에는 봉사활동이, 타인관계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에는 캠퍼스활동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타인관계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에 캠퍼스 활동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개인적 인성은 봉사활동과 연관이 있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봉사활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김상진, 2002; 방효업, 2000; 이가원, 2003; 은지용, 2002)에서는 자아정체성, 이타성, 사회적 책임성 등 모든 인성요인에서 관계가 있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인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 보다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많은 대학생인 경우에 타인관계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에 봉사활동의 영향력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인성과 캠퍼스 활동과의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많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많이 할수록 협동심, 자존감, 배려 등의 인성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단체종목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강하였다(김승진, 2013. 김영재,

허정훈, 2013; 박소정, 2014; 박태인, 2016; 한덕규, 2014; 한은택, 2015; 최의창, 2011). 대학생의 경우 스포츠클럽 이외에 다양한 캠퍼스 활동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활동이 타인관계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대학들이 인성교육을 교양교과와 연계한 학문적 접근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캠퍼스 내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한 행동적 차원의 체험중심 지식습득도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P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의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방법이 설문지법으로 이루어져 보다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명력이 9.0-10.6%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 성적, 학교활동 외에도 심리적 요인, 개인적 인성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운경, 김영래, 고미숙. (2008). 21 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
2. 김명순, 김성희. (2012). 대학생용 유교적 인성 척도 개발. *교육학연구*, 50(1), 27-53.
3. 김명화. (2015). 인성교육을 위한 정의적 특성 평가 재조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981-1000.
4. 김상진. (2002).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5. 김선주. (2016). 대학생 인성수준 및 요구도에 따른 인성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2), 1-19.
6. 김승진. (2013).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인성과 학업열의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7. 김재춘. (2012).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교육과학기술정책*, 2012. 9.
8. 노이경, 정남운. (2007).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한 구조화된 집단상담의 성장촉진요인.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2), 99-123.
9. 박성미, 허승희. (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 개발. *아동교육*, 21(3), 35-47.
10. 박소정. (2014). 중학생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인성과 공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1. 박태인. (2016). 중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가 인성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2. 박효정. (2000). 한국 사회의 도덕성 측정을 위한 도덕성 개념 및 덕목요소 추출. *한국교과교육학회*, PR 2000-2.
  13. 방효엽. (2000). 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4. 서경혜, 최진영, 노선숙, 김수진, 이지영, 현성혜. (2013). 예비교사 교직 인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1), 147-176.
  15. 성명희, 김은주. (2015).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과 요구도 분석. *윤리교육연구*, 38, 177-202.
  16. 손봉호, 조영달, 이승중, & 김해성. (1999). 연구논문/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규범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탐색. *시민교육연구*, 28, 1-44.
  17. 신차균. (2001).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이념과 실제. *교육철학*, 23, 205-225.
  18. 안범희. (2005). 미국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 및 특성 연구. *인문과학연구*, 13, 133-169.
  19. 양순미, 정민자, 오윤자. (2015). 농촌의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구 청소년의 인성과 영향 변인 비교. *농촌지도와 개발*, 22(4), 365-382.
  20.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 박민정. (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회지*, 45(3).
  21. 은지용. (2002). 청소년 봉사활동 반성 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2. 이가원. (2003). 봉사활동이 청소년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3. 이강하. (2009).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본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4. 이근호, 광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4.
  25. 이영애. (2006). 대학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9, 95-104.
  26. 이원희, 홍기철, 김용조.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건강과 인성발달을 위한 심리교육의 이론정립. *초등교육연구*, 13(1), 103-134.
  27. 이진이, 장형섭, 조은정. (2015).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대학생의 교육요구도 분석. *교육종합연구*, 13(1), 1-20.
  28. 이주희, 최명선, 박희현. (2009).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인간발달연구*, 5(2).
  29. 이형득. (1996). 대학의 인성교육과 교육 관련 연구소의 역할. *교육학연구*, 14, 67-82.
  30. 이효성, 이용환. (2011). 국내외 역량기반 교육과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교육연구*, 34, 17-35.
  31. 임광명. (2016).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3(2), 157-167.
  32. 장사형. (2011). 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방안. *교육철학*, 43, 193-222.
  33. 전제아. (2005).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 과정 사례 분석. *인간연구*, (9), 5-31.
  34. 정창우, 손경원, 김남준, 신호재, 한혜민. (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35. 조난심, 문용린, 이명준, 김현수, 김현지, 이우용. (2004).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36. 조난심, 문용린, 이명준, 김현수, 김현지, 이우용. (2004).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37. 조난심, 이종태. (1997). 개인연구/인간 교육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향 탐색. *교육철학*, 18, 99-123.
  38. 조연순, 김아영, 임현식, 신동주, 조아미, 김인정. (1998). 정의교육과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기초 연구 1. *교육과학연구*, 28(1), 131-152.
  39. 지은림, 이윤선, 도승이(2014). 인성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윤리교육연구*, 35, 151-174.
  40. 지희진. (2013).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5), 433-466.
  41. 진의남. (2012).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인식과 개선 요구. *실과교육연구*, 18(3), 145-169.
  42. 최의창. (2011). 운동소양의 함양:전인교육을 위한 초등체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 50(1), 93-107.
  43. 최준환, 박춘성, 연경남, 민영경, 이은아, 정원선, ... & 임청목. (2009).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 9, 89-112.
  44. 한덕규. (2014).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창의성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45. 한은택. (2015). 창의적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에 대한 중학생과 지도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46. 홍경자. (2004). *청소년의 인성교육*. 서울: 학지사
  47. Nerdrum, P. (1997). Maintenance of the effect of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A controlled follow-up

- study of level of communicated empathy.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7(5), 705-722.
48. Borich, G. D.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49. Carr, D. (1997). Character in teach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55(4), 369-389.
  50. Hersh, R. H., Miller, J. P., & Fielding, G. D. (1980). *Models of moral education: An appraisal*. New York: Longman.
  51. Lickona, T. (1992). *Character development in schools and beyond*. Washington, DC: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52. Lickona, T. (1993). The return of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51(3), 6-11.
  53. MacIntyre, A. (2007).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3rd, ed.).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54. Pearson, Q. M., & Nicholson, J. I. (2000).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Strategies for administrators, teachers, and counselors.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38(4), 243-251.
  55. Ryan, K., & Lickona, T. (1992). Character development. The challenge and the model. I K. Ryan & T. Lickona (ed.): *Character development in schools and beyond*. Washington, DC: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56.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Dr. Kwang-Myeong L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Pyeo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Sense of Community, Personality Education and Personality test. Address: (17869) Pyeongtaek University, 3825 Seodong-daero, Py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lkm3719@ptu.ac.k  
phone) 82-31-659-8387



Dr. Duk-Byeong Park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parkdb84@Kongju.ac.kr  
phone) 82-41-330-1383



Shin-Young Lee is a Researcher of General Education Center, Pyeo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lifelong education, knowledge management and character education. Address: (17869) General Education Center, Pyeongtaek University, 3825 Seodong-daero, Pyeongtaek, Gyeonggi-do, South Korea  
E-mail) learning@ptu.ac.kr  
phone) 82-31-685-8726

Received 12 November 2016; Revised 05 December 2016; Accepted 13 December 2016